

의대 노린 N수생 몰려...9월 모평 졸업생 비중 '역대 2위'

수험생 48만8292명 중 21.8% 차지...광주·전남 2787명 본 수능에서 졸업생 등 규모 21년 만에 최고치 기록할 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등의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졸업생 등을 비롯해 N수생들이 내년 의대 증원을 노리고 N수생 등이 대거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48만8292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재학생은 각각 1만3536명, 1만2074명이며, 졸업생 등은 각각 2366명, 42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전체 지원자는 1만 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수험생 비중은 평가원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21.9%)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졸업생 등 수험생 규모 자체 역시 모의평가 기준으론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2022학년도 9월의 경우 모의평가에 신청한 졸업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해준다는 소식에 허수 지원자들이 다수 몰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이 최대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계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고3 학생 수(39만4940명)가 직전 연도(43만1118명)보다 감소해 올해 N수생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이 증가한 점에 비춰, 본 수능에서는 졸업생 등 규모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작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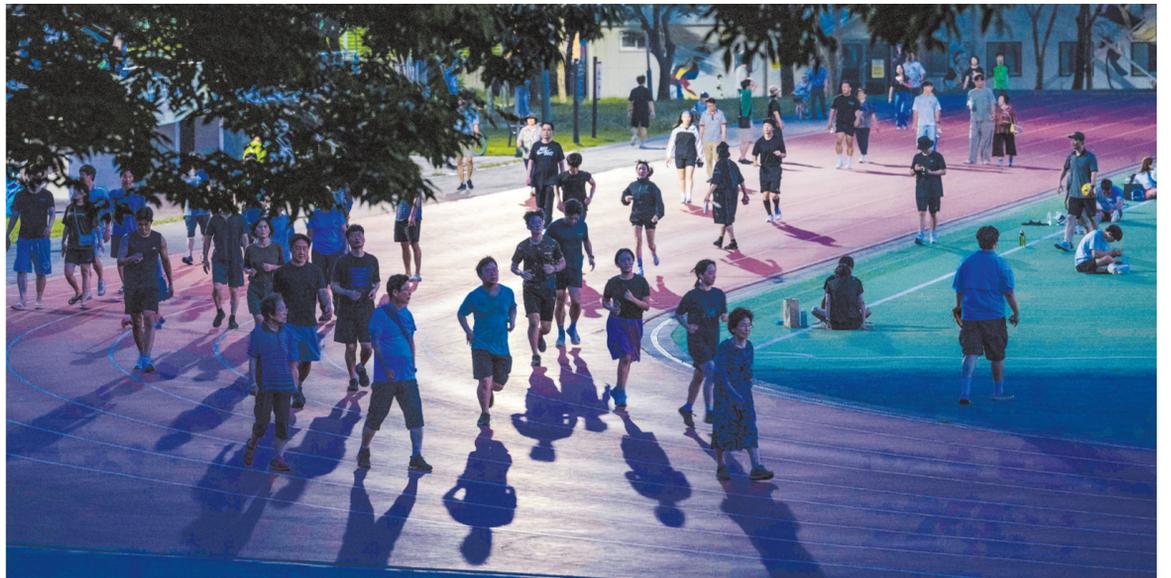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졸업생 규모(17만7942명)가 2004학년도(19만8025명) 이래 20년 만에 최고였다.

졸업생 등 수험생이 이번에 대거 몰린 것은 내년 의대 증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해 상위를 중심으로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대 의대는 2025학년도에 163명, 조선대는 150명, 전북대는 171명, 원광대는 150명을 선발한다.

광주시교육청 정훈탁 장학관은 "모의평가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지역 졸업생 등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렵다"면서도 "광주지역에 사실상 재수학원이 없어 대부분 재수생이 수도권에 있는데다 반수생들은 9월 모평에 응시하지 않고 바로 수능을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N수생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응시자 특성과 개선점을 파악해 수능에 반영한다. 9월 모의평가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운동하기 좋은 날 26일 저녁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운동장이 무더운 낮시간을 피해 밤운동을 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수업 중 교수에게 박수쳐야 하고...학기당 100만원 회비 내고

"시대 뒤진 전남대 치의전원"

시민모임, 생활 매뉴얼 지적

전남대 치의학전문학원(이하 치의전원)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일상 생활을 통제하고 금품을 각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전남대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만든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라는 규율집을 입수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수업예절, 복장예절(후드티,슬리퍼 등 착용금지), 생활예절, 교실 관리 등 내용이 담겼으며,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업 중에는 교수에게

리액션(반응)을 해 줘야 한다는 등 규율이 포함돼 있었다.

규율을 위반할 시 '자봉(자원봉사)'이라는 명목 하에 벌점을 매기며,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 사례로는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등 사유도 포함됐다.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에 앞서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스터디(동아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모의고사 점수가 미달할 경우 등에도 벌점을 매기거나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으며, 벌금은 학급비로 쓰인다고 한다.

또한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로부터 학기 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둬내고 있으며, 학생들은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학급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활동가는 "교육부는 전남대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의전원의 학생 자치조직 대표는 전남대 관계자를 통해 "선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자치 생활 규약으로, 1학년 때 공유하고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문건이다. 사문화 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다"며 "학급비는 국가고시 대비용 자료 인쇄·구매비 등으로 쓰이는 것이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각종 규율은 예미 의료인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교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강대 7개 학과, 4년제 학사학위 수여

군사학과·방사선과·건축학과 등

광주 동강대학교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 과정을 7개 학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강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군사학과, 방사선과, 건축학과 등 3개 학과의 전공심화 과정을 인가받았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한 전

문 학사자들이 취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까지 가능하다.

동강대는 2019년 임상병리학과를 시작으로 2021년 유아교육학과, 2022년 보육복지학과와 AI융합기계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인가를 받았다.

동강대는 3년제 과정인 임상병리학과와 유아교육학과는 각각 4학년을 선발하고 2년제인 보육복

지학과와 AI융합기계학과는 3학년을 모집해 2년 과정 후 각각 사회복지학과와 공학사 학위를 준다.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과, 건축학과는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다.

동강대는 9월 9일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들어가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체능 등 4개 계열 19개 학과에서 945명을 모집한다.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소벤처기업부 계약학과, 고용노동부의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등의 정부 프로젝트 7개 학과의 신입생도 선발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전남 임금체불액 54% 늘었다

올 상반기 1002억원...전년 동기대비 352억 증가

광주·전남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이 밀렸다고 신고된 금액은 총 10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억원)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목포지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청별로 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체불 신고 금액이 273억원에서 46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목포지청은 12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여수지청은 256억원에서 381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액이 급증한 것은 대우 위니아 그룹의 체불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우 위니아 그룹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1조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158개사를 찾아 추석 명절대비 체불임금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도를 해 추석 전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수지청과 목포지청도 같은기간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